

5.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에 대한 기초지식

1. **감염** :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감염원** : 감염원이 되는 것은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3. **감염경로** :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말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4. **매개체** :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매개체라 한다.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각 질환에 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5. **잠복기간** :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

기를 가진다.

☐ 전염성 질환 관리

1. 법정 전염병의 종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종 류	내 용
제1군 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제2군 감염병	가. 디프테리아나. 백일해(百日咳) 다. 파상풍(破傷風) 라. 홍역(紅疫)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바. 풍진(風疹)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타. 폐렴구균
제3군 감염병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성홍열(猩紅熱)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쓰쓰가무시증 카. 렘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탄저(炭疽) 하. 공수병(恐水病)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너. 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 매독(梅毒) 머.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제4군 감염병	1. 페스트2. 황열3. 뎅기열4. 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8.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熱)12. 웨스트나일열13. 신종감염병증후군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16. 유비저(類鼻疽)17. 치쿤구니아열 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19.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제5군 감염병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 충증
지정 감염병	가. C형간염 나. 수족구병 다. 임질 라. 클라미디아 마. 연성하감 바. 성기단순포진 사. 침균콘딜롬 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차.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카.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타.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감염증 하. 장관감염증 거. 급성호흡기감염증 너.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2. 전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

- 가.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 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나. 전염성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 다.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 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라.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

□ 감염 예방 및 관리

1. 손 씻기

손 씻기는 감염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이나 상처배액과 같은 대상자의 신체물질을 만진 후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1) 목적

- 가.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및 노인의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 한다

2) 주의사항

- 가. 손 씻기는 감염예방의 기본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실행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나. 어르신도 화장실을 다녀와서, 식사 전 외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화장실을 이용한 후
-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 음식 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난 후

다. 손톱 밑이나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깎는다.

3) 순서

가.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담겨진 물에 씻거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오염물을 제거 할 뿐 미생물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나. 비누거품이 날 때 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다. 흐르는 온수에 손을 행군다.

라. 깨끗한 일회용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마.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잡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감싸서 수도꼭지를 잠근다.

4) 방법

가. 비누를 묻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나.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가락을 끼고 문지른다.

다.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라.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마.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바.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비눗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흐르는 물에 행군다.

사. 소독된 일회용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는다.

2. 분비물 처리

- 1)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 2)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하도록 한다. 가정에서는 따로 세탁하도록 한다.
- 3)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행구며 필요 시 소독한다.

3. 수급자의 위생관리

- 1) 목욕을 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2)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침상을 떠나 있는 시간이 적으므로 실금 등이 있거나 하면 침구가 불결해져서 미생물의 발생장소가 되기 쉬우므로 항상 침구의 위생관리를 하여 감염 관리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 3) 대상자 몸에 걸친 의류 더러움 없애는 방법, 표백제 사용에 의한

소독방법을 잘 알아 두고 청결 관리에 유의한다.

4.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 1)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개인위생을 실천함으로써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상자의 교차감염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 2) 피부, 머리카락 및 두피에 있는 미생물수 감소시키고 성장억제 위해 매일샤워, 목욕한다.
- 3) 자주 칫솔질을 하여 치아의 건강을 유지한다.
- 4)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정착하거나 감염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션을 사용한다.
- 5)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손톱은 짧게 깎고 청결하게 한다.
- 6)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 7) 대상자와의 접촉 시 주의한다.
- 8) 청소나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은 철저히 관리한다.
- 9) 필요시 보호 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5. 유치도뇨관 보유 대상자의 감염관리

- 1) 손 씻기 자주하기.
- 2) 요관 당겨지지 않게 하기.
- 3) 튜브가 꼬이거나 막히지 않도록 하기.
- 4) 수집 병으로부터 소변 역류되지 않도록 하기.
- 5) 의자, 침대에 위치한 대상자의 수집 병을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고정시키고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하기.

6)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수집 병을 잠그고 이동하기.

7) 수집 병은 적어도 8시간에 한번은 비워 주기. 소변양이 많은 경우 더 자주 비우기.